Weekly 2022년 제13호 | 2022.5.26.(목)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Global Value Chain(GVC) Insight

금주의 GVC Insight

최신 GVC 해외 이슈

【에너지, EU】 EU 집행위, '리파워 EU(REPowerEU)' 에너지 안보 계획 발표

【원유, 미국·러시아】 美 에너지부 장관, 러시아산 원유 수입국 제재 가능성 시사

【가스·전력, 러시아·핀란드】 러시아, 핀란드로 향하는 가스·전력 공급 중단

【에너지, 미국】 美 셰일가스 기업, 최근 고유가 추세로 이익 급증 전망

【산업·소비, 중국】 중국 상하이 4월 산업생산 60% 이상 급감

【경기부양, 중국】 중국 국무원, 경기 부양 위해 33개 종합대책 발표

【석탄, 중국】 중국 1~4월 석탄 생산량 10.5% 증가

【팜유,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팜유 수출 재개

【물류, 세계】 글로벌 해상운임 18주 만에 반등, 美 제외 전 노선에서 상승

【공급망, 미국】 뉴욕연준, 4월 '글로벌 공급망 압력 지수(GSCPI)'가 높아졌다고 발표

【배터리, 세계】 전기차 배터리 비용, 원자재 부족 지속 시에는 '26년까지 22% 상승 전망

GVC 뉴스 더하기

① 헝가리가 對러 금수조치를 반대하는 속사정

② 일본 정부의 에너지 안보 확보 방향 및 최근 기업 동향

③ 러시아의 비료 수출 쿼터 유지와 글로벌 비료 시장 동향

GVC 기초상식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GVC 전문가

① 박선민·이유진(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및 시사점(IPEF 등)'

② 강내영·양지원(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 '중국의 봉쇄조치 시나리오별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GVC 돋보기

배터리(이차전지)의 종류와 특징

GVC 소식통

① 러-우 사태, 중국 봉쇄조치 관련 기업 지원 문의처

② 기업들을 위한 물류 지원 사업 안내

③ 공급망 관련 세미나 및 상담회 개최 소식

④ 공정위, '납품단가 조정 가이드북' 작성·배포

더 찾아보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세계무역의 새로운 도전" (제프리 스콧 초청, 세계경제연구원 웨비나)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Value Chain

최신 GVC 해외 이슈

● 【에너지, EU】 EU 집행위, '리파워 EU(REPowerEU)' 에너지 안보 계획 발표

- EU 집행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시장을 키우고 화석에너지 공급선을 다양화해 러시아산 화석에너지 의존에서 벗어나기로 함
- 집행위는 5.18일 '리파워 EU(REPowerEU)'로 명명한 에너지 안보 계획을 발표함. '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지난해 제시한 40%에서 45%로 높이는 동시에, 에너지 소비의 감축 목표도 기존 9%('20년 대비)에서 13%로 확대함
  - 공공건물에는 '25년까지, 신축 주거용 건물에는 '29년까지 태양광 패널 등 발전설비 설치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 (기존 건물은 A~G의 에너지 효율 등급(G가 가장 비효율) 가운데 D이하의 건물일 경우 태양광 설치 대상)
- 리파워 EU 계획은 27개 회원국 승인을 거쳐 확정될 예정임. 리파워 EU 성공을 위해 '30년까지 3,000억 유로(약 400조원)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됨
- 반면, 환경단체들은 러시아 화석연료를 끊는 대신 이집트·나이지리아 등 가스·석유 대체 공급원을 확보하려고 가스관, 송유관 설치에 120억 유로를 투자하는 것이 문제라고 비판함. 기후감시단체인 '글로벌위트니스'는 "기후위기를 부채질하고 인권침해 국가에 계속 자금을 대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함

출처 : 서울신문·매일경제('22.5.20), EU집행위(EC) 등

● 【원유, 미국·러시아】 美 에너지부 장관, 러시아산 원유 수입국 제재 가능성 시사

- 제니퍼 그랜홈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5.19일 기자회견에서 러시아 석유 구입과 관련해 미국 정부의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이 있을지 묻는 말에 "논의에서 배제된 게 아니라는 점은 확실한 것으로 안다"고 답함. 세컨더리 보이콧은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제3자에게도 위반의 책임을 함께 묻는 제재임
- 미국은 우크라이나 침공의 책임을 묻고 러시아의 전쟁 비용 충당을 저해하기 위해 영국, 캐나다 등과 함께 러시아산 원유의 수입을 금지함
- 미국 정부의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 시사는 러시아와 전략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국가에 대한 경고로도 해석됨. 이와 관련 중국과 인도는 러시아산 원유를 저렴한 가격에 사들이며 수입량을 늘리고 있음. 특히, 인도는 3월에 하루 6.6만 배럴 수입하던 것을 4월에는 하루 27.7만 배럴로 늘린 바 있음

출처 : 로이터, 연합뉴스 등

● 【가스·전력, 러시아·핀란드】 러시아, 핀란드로 향하는 가스·전력 공급 중단

- 러시아는 핀란드의 가스대금 루블화 지불 불이행을 이유로 5.21일부터 핀란드로 향하는 가스 공급을 차단함. 이에 핀란드 국영 가스회사 Gasum은 핀란드와 에스토니아를 연결하는 가스관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공급이 중단된 가스를 대체할 예정이라고 밝힘
  - 영국 가디언은 "핀란드가 지난 18일 스웨덴과 함께 나토 가입을 신청한 것이 러시아를 화나게 했다"고 분석
  - 다행히 핀란드의 연간 에너지 소비에서 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5%에 불과
- 또한, 러시아는 5.14일 핀란드로 향하는 전력 공급도 중단함. 러시아산 전력은 핀란드 전체 사용량의 약 10%임. 핀란드 전력망 운영사인 Fingrid는 스웨덴으로부터 전력 수입량과 국내 발전량을 증대시켜 이를 대체할 수 있다고 밝힘
- 러시아가 나토에 가입하려는 두 국가(핀란드·스웨덴) 중에서 유독 핀란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1,340km에 이르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핀란드가 나토라는 '군사적 동맹'을 얻는 것이 더 부담스럽기 때문이라고 외신들은 분석함

출처 : AP통신, 가디언, 서울신문 등 언론보도 종합

● **【에너지, 미국】 美 셰일가스 기업, 최근 고유가 추세로 이익 급증 전망**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으로 미국의 셰일가스 기업들이 막대한 현금 수혜(tsunami of cash)를 입을 것으로 전망
- 컨설팅회사 리스타드에너지(Rystad Energy)에 따르면 현재 높은 원유가격으로 인해 미국 셰일 업체들에 약 1,800억 달러의 잉여현금 흐름(free cash flow)을 예상
- S&P 인사이트는 이번 수혜가 지난 10년간 셰일 기업들에 쌓였던 부채를 상회하는 금액으로 지난 20년간 수익을 모두 합친 총액보다도 큰 것으로 분석
- 그럼에도 기업들은 공급망과 노동력 제약으로 인한 비용 인플레이션을 우려, 생산 확대 투자 보다는 부채 상환과 배당금, 자사주 매입에 투자할 것으로 전망

출처 : 파이낸셜타임즈(5.16) 등 언론보도 KOTRA 워싱턴무역관 종합

● **【산업·소비, 중국】 중국 상하이 4월 산업생산 60% 이상 급감**

-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3.28일부터 두 달 가까이 봉쇄되고 있는 중국 상하이가 생산과 소비 전반에 걸쳐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지난 4월 상하이의 산업생산은 1,364억 위안(약 26조원)으로 지난해 동월의 3,552억 위안(약 68조원)보다 61.6% 감소했다고 상하이 통계국이 5.22일 발표함. 4월 소매판매도 717억 위안(약 14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387억 위안(약 26조원)보다 48.3% 감소함
- 상하이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인 사회·경제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다음달 발표될 5월 경제 지표도 4월과 유사할 것으로 전망됨
- 참고로, 5.16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4월 산업생산과 소매판매는 각각 -2.9%, -11.1%를 기록

출처 : 조선비즈('22.5.23), 상하이통계국, 중국국가통계국

● **【경기부양, 중국】 중국 국무원, 경기 부양 위해 33개 종합대책 발표**

- 리커창 총리 주재 국무원 상무회의(5.23일)에서 "경제를 정상궤도로 되돌리고 합리적 구간에서 운영하도록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6개 분야, 33개 경기안정 종합대책을 수립
- (분야) ①재정지원, ②금융지원, ③산업망·공급망 안정, ④소비·투자 촉진, ⑤에너지안보, ⑥민생보장
- (대책) △세금환급 1,400억 위안(약 26.5조원) 추가로 늘려 전년도 세금환급 규모 2조 6,400억 위안(약 500조원)까지 확대, △중소영세기업 사회보험 연말까지 납부 유예, △자동차 구매제한 완화 및 자동차 취득세 600억 위안(약 11.3조원) 감면, △부동산 규제 완화, △국유 자동차제조사에서 900억 위안(약 17조원) 규모의 화물차 구매대출 자금 마련, △석탄 생산량 확대, △'화이트 리스트' 제도를 보완한 조업재개 지원 강화, △물류난 해소 및 물류 안정 보장대책 강화, △수리시설, 노후아파트 개조 등 투자 프로젝트 가속화, △물가안정 대책 강화 등
  - 33개 종합대책은 각 주무부처(세무총국, 상무부 등)에서 구체화 방안을 제정하여 추진할 것

출처 : 연합뉴스, KOTRA 베이징 무역관, 중국 국무원 등

● **【석탄, 중국】 중국 1~4월 석탄 생산량 10.5% 증가**

- 금년 1~4월 중국의 누계 석탄 생산량은 14억 4,778만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10.5% 증가했으며, 이 중 산시(山西), 산시(陕西), 네이멍구, 신장 등 4대 석탄 생산기지의 비중 합계는 80.9%
  - 1~4월 석탄 수입량은 전년 동기대비 16.2% 감소한 7,541만톤임 (1~3월 석탄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24.2% 감소했으나 4월에는 수입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서 8.4% 증가)

출처 : KOTRA 베이징무역관,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 등

● **【팜유,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팜유 수출 재개**

- 인도네시아 정부는 4.28일부터 시행했던 팜유 원유와 대부분의 파생상품 수출 금지를 5.23일부로 전면 해제함 (다만, 식용유 내수 물량 1,000t을 유지하기 위해 내수시장 공급 의무를 부과)
  - 인도네시아의 월간 팜유 공급량은 3월 6만4500톤에서 수출금지 조치 이후 21만1천톤으로 월간 수요(19만5천톤)를 상회하는 수준까지 회복
  - 인도네시아 현지 식용유 가격은 3월 리터당 1만9800루피아(약 1,723원)에서 수출금지 조치 이후 1만7200~1만7600루피아(약 1,496~1,549원) 대로 하락
- 국내 수급이 안정화되는 가운데 수출 금지령에 따른 농민들의 수익 악화에 따라 반발이 거세지고, 무역수지 흑자 폭 감소가 우려되자 수출을 재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짐
- 한편, 팜유 최대 수입국인 인도를 비롯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수입선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음

출처 : 뉴시스('22.5.24), 연합뉴스('22.5.20) 등 언론보도 종합

● **【물류, 세계】 글로벌 해상운임 18주 만에 반등, 美 제외 전 노선에서 상승**

- 글로벌 해운 운임 지표인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전주 대비 14.86% 오른 4162.69를 기록
  - 미주 노선을 제외한 전 노선 상승
  - 전주 대비 유럽 노선은 2달러 상승한 5,862달러, 남미 노선은 56달러 오른 6,309달러, 중동 노선은 109달러 오른 2,567달러를 기록
- 업계는 중국 상하이시 봉쇄 완화가 해운 운임 반등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
  - 봉쇄 해제 시 물동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지수에 반영
  - 실제 중국 정부는 오는 6월부터 상하이시 봉쇄를 해제할 예정이며, 지난 22일부터는 지하철,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운행을 재개해 시 전체가 정상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출처 : 뉴시스('22.5.24)

● **【공급망, 미국】 뉴욕연준, 4월 '글로벌 공급망 압력지수(GSCPI)'가 높아졌다고 발표**

- 뉴욕연방준비은행은 5.18일 '22년 5월 글로벌 공급망 압력지수 업데이트 보고서를 통해 지난 4월의 글로벌 공급망 압력 지수(GSCPI)가 3.29를 기록했다고 발표
  - 동 지수는 1월 3.74에서 2월과 3월 2.80을 기록한 후, 4월에 다시 3.29로 높아짐 (참고로, 1년 전인 '21.4월에는 2.55 수준이었음)
- 뉴욕연준은 '21.12월에서 '22.3월 사이에 GSCPI 지수가 다소 완화되었지만, 4월 수치는 글로벌 공급망 제약으로 인해 재차 상승되었다며, 당면한 중국·유럽 관련 요인으로 인해 단기간 공급망 압력이 높아지는 지정학적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힘

출처 : 연합인포맥스(5.19)

● **【배터리, 세계】 전기차 배터리 비용, 원자재 부족 지속 시에는 '26년까지 22% 상승 전망**

- 리서치 회사 E Source는 전기차용 배터리를 만드는데 필요한 리튬·니켈 등과 같은 핵심 원자재의 부족으로 인해 전기차의 생산 비용이 향후 4년 동안 22%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전기차용 배터리의 가격은 핵심 원자재의 글로벌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내년까지는 내림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23년에서 '26년까지 22% 상승하여 kWh(kilowatt-hour)당 138달러까지 이를 것으로 추정
- 이 같은 배터리 제조 비용 증가로 '26년에 판매되는 전기차 가격의 차량당 1,500~3,000달러 상승 예상

출처 : CNBC(5.19) 등 언론보도 KOTRA 실리콘밸리무역관 종합

GVC 뉴스 더하기 ① : 헝가리가 對러 석유 금수조치를 반대하는 속사정

※ '22.5.4일 EU 집행위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23.1월에 석유제품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對러 6차 제재안**을 제시했으나,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65%에 달하는 **헝가리의 반대로 합의 달성에 난항**을 겪고 있음. 헝가리의 석유 금수조치 반대 사유와 이를 둘러싼 이야기를 살펴보자

● EU 對러시아 6차 경제 제재안의 석유 금수 추진에 대한 헝가리의 수용 거부

- 지난 5.8일 유럽연합(EU) 27개국은 러시아산 석유 금수조치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조율하기 위해 회담을 열었으나 헝가리를 비롯한 일부 국가의 반대로 결렬됨 (통과를 위해 만장일치 필요)
- EU 집행위가 러시아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헝가리와 슬로바키아에 대해 '24년 말까지, 체코는 '22년 6월까지 금수조치 유예기간의 중재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들은 제재 동참을 거부
  - 5.8일 헝가리 외무장관은 그간 EU의 모든 對러 제재안을 수용했지만, 이번 조치는 헝가리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는 것으로서 중재안 또한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이 아닌 바, 제재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밝힘

● 헝가리의 석유 금수 조치 수용이 어려운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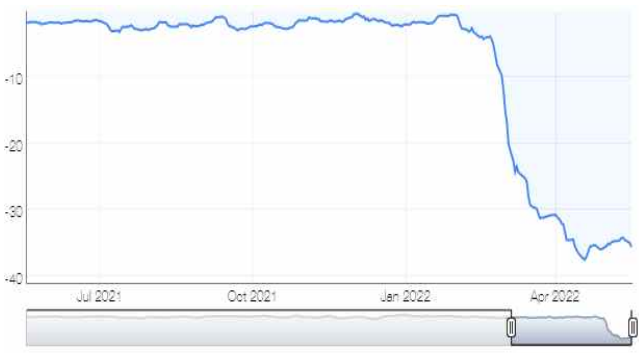
(1) 제한적인 원유 정제기술

- **헝가리에는 원유 정제소**가 Danube Refinery(Százhalombatta 소재) **단 한 곳**밖에 없으며 이 곳은 **러시아산 원유인 우랄스유 정제에 최적화**
- 타 원유 정제는 전체 시설 중 30~35%까지만 가능하며 **非우랄스유로 완전히 대체**하기 위해서는 **신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
  - 인프라 구축 비용으로 5~7억 달러 예상, 구축 기간은 2~4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2) 저렴한 우랄스유 중심의 정유산업

- 헝가리 정유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MOL사는 연간 약 1,400만 톤의 원유를 처리하는데 65%에 해당하는 900만 톤이 러시아산임
  - MOL(Magyar Olajes Gazipari Nyrt) :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40개국에서 원유 정제부터 운송, 저장, 도소매 유통 및 석유화학 제품 생산 및 판매 전반의 사업 추진 중인 헝가리 대규모 그룹사
- 세계 유가 상승으로 북해 연안 브렌트유 가격이 고공행진 중인 반면 러-우 사태로 수요가 줄어든 우랄스유는 가격변동이 적었음

〈우랄스유-브렌트유 가격 차이 (단위 : USD, BBL)〉



1배럴당 우랄스유 가격 - 브렌트유 가격 수치(USD)로 숫자가 작을수록 우랄스유가 상대적으로 저렴함을 의미 (출처: 핀란드 NESTE)

- MOL사의 **우랄스유의 배럴당 정제 마진**은 2월 3.4달러에서 3월 33.7달러로 상승하며 **원가와 판매가 차액이 약 10배 증가**, 헝가리의 우랄스유 구입이 지속 가능하다면 **연간 최대 17억 달러 흑자*** **전망**

* 헝가리 투자기업 Concorde의 Gálért Gaál 분석

(3) 물가상승 대응책의 유가상한제

-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른 경기침체에도 불구 '21년 6%대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한 헝가리는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21.11월 **생필품 및 유류 가격 상한제를 도입**
  - 특히 소매용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리터당 480포린트(한화 약 1,665원, 5.13일 기준)로 제한

- 전 세계적인 유가 상승에도 **헝가리의 유가는 7개월째 고정**되어 그간 가격 상한제로 인한 손실을 민간이 부담해온 것은 **러시아산 원유가 저렴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
  - '22.4월 재선에 성공한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가격 상한제를 금년 7.1일까지 연장함
- 그러나 **對러 6차 제재 시행 시** 헝가리는 값싼 러시아산 원유가 아닌 브렌트유 등을 수입해야 하므로, **현재 가격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 헝가리 외무장관은 원유를 非러시아산으로 전부 대체 시, 연료 가격이 약 55~60% 인상될 것으로 예상

(4) 해상운송 인프라 부재

- 내륙국가인 헝가리는 주로 **육상 파이프를 이용해 우랄스유를 조달**, 해상운송 대비 **운송비가 낮음**
  - 인근국 크로아티아 통해 해상운송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 2회 수준이며 규모도 작은 편
- 전문가들은 원유 수입을 **非러시아산으로 완전 대체 시, 최소 이틀에 한번 해상운송 필요** 예상
- 크로아티아 원유 운송사(JANAF)가 헝가리로 운송하기 위해서는 **신규 시설 구축이 필요** → 관계자들간 **비용 부담 주체, 구축 방향 등에 대한 협상**이 이뤄져야 하나, 아직 **EU는 구체적인 계획 및 혜택 제공 여부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음**

〈유럽 국가별 러시아 원유 공급 파이프(빨) 및 석유 정제 설비(초)〉

(출처: ICIS)

(5) 헝가리 정부의 친러 성향

- 헝가리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국제사회에 동조하면서도 "전쟁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일"이라 선을 그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 제공을 거부**한 바 있음
- 헝가리 오르반 총리가 **경제 분야에서 친러 정책**을 펼쳐 **많은 러시아 기업·자본이 헝가리에 진출**, 대외적으로도 **헝가리 정부는 친러 성향**이 갖고 있다고 평가됨
  - 美 정치매체 포린폴리시는 오르반 총리가 EU에서 '푸틴의 가장 가까운 동맹'이라 칭함.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헝가리와 러시아가 '따뜻한 관계'를 맺어왔다고 표현

푸틴 러시아 대통령(우)과 오르반 헝가리 총리(좌) (출처: 로이터)

- 유럽정책센터(European Policy Centre) 파비안 줄레그 최고경영자는 "오르반 총리의 결정은 **EU로부터 이익을 최대한 얻어내는 동시에 국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갈등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이득이 있을지라도 장기적으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며 헝가리는 고립될 것"이라고 경고

● 전망 및 시사점

- EU 외무장관들이 러시아산 석유 금수조치를 거부하고 있는 헝가리에 동참을 공개적으로 요청하고 있음에도 불구, 헝가리 당국은 **EU가 여전히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
  - (헝가리 외무장관) 러시아산 석유로 단계적 대체를 위한 헝가리 에너지 인프라의 현대화 작업에는 150억~180억 유로(한화 약 20~24조원)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EU의 지원 방안을 제시해야 함을 주장. 더불어 현재 러시아에서 헝가리로 이어지는 송유관을 제재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
- 석유 금수조치는 EU의 강력한 對러시아 제재로 작용할 수 있는 바, **EU가 헝가리 등 석유 수입금지 조치 거부국에 대해 지원책을 마련**하여 석유 금수조치를 시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됨

GVC 뉴스 더하기 ② : 일본 정부의 에너지 안보 확보 방향 및 최근 기업 동향

※ 러-우 사태로 글로벌 기업들이 러시아 사업을 철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사할린 에너지 사업에서 철회하지 않을 방침**을 표명('인사이트' 9호 참조), 최근(4월말) 하기우다 경제산업대신은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러한 정책 방향을 다시 한번 피력함. 이를 포함하여 여타 일본의 해외 에너지 자원 개발 동향도 함께 살펴보자

● 일본 정부의 사할린 권익 등 에너지 안보 방향 [하기우다 경산대신 인터뷰]

- **(사할린 권익 확보)** 일본은 에너지 자원의 대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으로, 우크라이나 정세의 변화가 **일본의 에너지 안보를 저해시켜서는 안된다**는 입장
  - 이러한 관점에서 장기적이고 저렴한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공급원인 「사할린-1」(원유), 「사할린-2」(LNG), 「Arctic LNG-2」(북극권 LNG)에서 모두 철수하지 않을 방침을 표명
  - 일본이 사할린-1,2의 권익을 내려놓으면 즉시 제3국이 권익을 차지하려 할 것이며, 제3국에 권익이 넘어가지 않더라도 러시아가 원유·LNG를 시장에서 거래하면 현재보다 고가에 거래될 가능성이 높음
- **(對러시아 에너지 의존 완화 필요)** 기본적으로는 **對러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겠지만**, 1개국이 러시아와 거래를 중단해도 **전 세계 에너지소비량이 변함없다면 자원 쟁탈전에 따라 가격상승만 초래**하는 결과
  - 러시아로부터 줄인 수입량을 메우기 위해 산유국에는 원유 증산을, 미국에는 셰일 증산 등을 요청하고 있으며, 각국은 러시아 이외의 국가별 사정을 고려하며 최선의 선택지를 만들어 나가야 함
- **(원전 재가동 추진)** **'50년 탄소중립 목표**는 변경 없고, **원전 신·증설 및 재건축은 검토하지 않고** 있으나, 운영이 중단된 원전을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새로운 규제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지역(지자체·주민)의 이해를 얻어 재가동**하는 것을 경산대신의 책임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함
- **(러-우 사태 관련 국제사회의 방향)** 러시아의 폭거가 심화되는 것과 관련하여, 유엔이 중심이 되어 국제사회 규범을 형성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유엔이 바람직한 존재 형태로 재구축**될 필요
  -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에도 입장이 상이한 이해관계국이 존재하고 있는 바, 현재는 한 나라라도 거부권을 발동하면 사안이 결정되지 않게 되는데, 민주주의 규범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상황

● 일본 기업의 최근 해외 에너지 자원 사업 추진 동향 및 시사점

- 최근 일본 정부·기업은 **미얀마 Yetagun 가스전 사업에서 철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 미얀마 사업의 일본 에너지 안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기업의 수익이 많이 줄어든 것과 관련이 큰 것으로 평가

기업명	프로젝트명	세부내용
「JX미얀마 석유개발주식회사」 (경제산업성[50%출자], ENEOS홀딩스[40%출자], 미쓰비시상사[10%출자])	Yetagun 가스전 사업	• 「JX미얀마석유개발주식회사」는 미얀마 현지 가스전 사업 운영사인 Petronas Carigali 및 여타 공동사업자에 대해 4.29일자 계약상 철수 통지 - 미얀마의 사회과제 대응 방식을 포함, 쿠데타로 실권을 장악한 국군의 자금원이 되고 있다는 비판 및 프로젝트 사업성 등을 기반으로 검토, 협의한 결과 • Yetagun 가스전은 '92년에 발견되어 '00.5월부터 천연가스 생산을 개시, 동 가스전으로부터의 수입량은 '00년대 후반 피크 대비 최근 1/20까지 감소 - 동 프로젝트 철수로 인한 실적 영향은 미얀마 정부 승인 획득 후 확정되나, 현 시점에서는 경미할 것으로 예상

- **자국의 에너지 안보와 관련하여 핵심적인 해외 자원개발 프로젝트는 타국의 도덕적 비난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본의 입장 (러시아 프로젝트 vs. 미얀마 프로젝트)

정리 공급망 모니터링실(KOTRA), 종합전략실

GVC 뉴스 더하기 ③ : 러시아의 비료 수출 쿼터 유지와 글로벌 비료 시장 동향

※ 러-우 사태로 Eurochem, Acron, Phosagro 등 러시아의 주요 비료회사들은 서방의 금융 제재를 받았고 러 산업통상부는 자국 비료 제조사들에게 일시적인 비료 수출 중단을 권고하였음. 비료 생산·수출 대국인 러시아의 최근 비료 수출 쿼터 유지 발표와 관련한 글로벌 동향을 살펴보자

● 러시아의 비료 수출 쿼터제 및 현지 비료 가격 동결 추진 개요

- '22.4.21일, 러시아 연방 산업통상부는 '21.12월부터 발효된 **비료 수출 쿼터제와 현지 비료 가격 동결**을 **'23.7월까지 연장할 방침**이라고 발표
  - (비료 수출 쿼터제) 연간 수출 쿼터 1,125만 톤 : '21.11월 자국 수출기업 11개사에 기업별 요소비료(질소비료) 590만 톤, 인산 및 칼륨비료 535만 톤 등 쿼터량 할당 완료
  - (비료 유통가격 고정) '21년 초부터 글로벌 비료 가격 급상승, 러시아 현지 유통가격도 크게 오르면서 '21.6월 농업 생산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21.7월부터 시행

● 러시아 비료 산업 및 수출 동향

- **(생산)** '21년 러시아는 **세계 비료 생산량의 22%인 5,680만 톤을 생산**

- **(질소비료** [HS3102.10]) 질소비료 원료인 요소 '21년 수출량 699만 톤 [연간 생산량 876만 톤]
  - ('21년 기준 주요 수출대상국) **1위 브라질(138만 톤),** 2위 핀란드(85만 톤), 3위 스위스(55만 톤), 4위 에스토니아(53만 톤), 5위 미국(49만 톤)이고 對한국 수출은 미미(280톤)

- **(칼륨비료** [HS3104.20]) 칼륨비료 원료인 염화칼륨 '21년 수출량 1,183만 톤
  - ('21년 기준 주요 수출대상국) **1위 브라질(352만 톤)**, 2위 중국(260만 톤), 3위 미국(108만 톤), 4위 인도네시아(84만 톤), 5위 에스토니아(76만 톤)이고 對한국 수출은 미미(17톤)

※ 칼륨비료는 염화칼륨비료와 탄산칼륨비료로 구분 → 러시아의 칼륨비료 생산은 내수용 소량에 불과(약 60만톤)하나, 염화칼륨의 기초원료인 '칼륨염' 매장량이 세계적인 수준
* 러시아 칼륨염 매장량은 8,230만 톤으로 캐나다에 이어 2위, 전 세계 시장의 21%를 차지

- **(인산비료** [HS3105.30]) '21년 기준 129만 톤 수출 [연간 생산량 약 800만 톤, 세계 2위 수준]
  - ('21년 기준 주요 수출대상국) **1위 멕시코(12.9만 톤)**, 2위가 벨기에(10.1만 톤), 3위 인도(9.2만 톤), 4위 벨라루스(7.2만 톤) 등이고, 對한국 수출은 집계되지 않을 정도로 미미한 수준

●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러-우 사태에 따른 서방의 對러 제재 및 러시아의 보복조치와 내수물량 확보 정책이 일부 영향을 미쳐 **글로벌 비료 수급 안정화에는 시간이 걸릴 것**
  - EU는 7.10일부 對러 비료 수입 쿼터제를 시작하겠다고 발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쿼터 대상 품목은 칼륨비료(HS 3104.20)와 칼륨복합비료(HS 3105.20, 3105.60, 3105.90)
  - 미국은 3.24일 OFAC(해외자산관리국)의 신규 일반 허가 사항을 발표, 러시아 비료 수입 제재 가능성은 제외

- **비료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공급망 다변화 전략 및 자국 산업 육성책** 등을 마련하고 있는 바, 최근 글로벌 동향 검토를 통해 **우리의 틈새시장 발굴 및 대응책**을 고민할 필요
  - (브라질) '20년 기준 중국, 인도, 미국에 이은 세계 4위 비료 수입국, 총 비료 수입액 중 23%가 러시아산. 수입산 비료에 유리한 세금 구조 및 높은 비료생산 에너지·원료가로 주로 수입에 의존해왔으나(비료 소비액 중 수입 비중 84%), 이번 공급망 위기로 '국가비료계획'을 제정하여 '50년까지 생산자급률 50% 목표 수립

정리 공급망 모니터링실, KOTRA

GVC 기초 상식 :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 5.23(월) IPEF 출범을 선언하는 정상회의가 개최됨. 인도를 포함하여 다수의 ASEAN 국가 등 총 13개국이 참여함으로써 당초 예상한 규모를 뛰어넘음. 아래에서 IPEF의 개념·내용·기대효과 등을 살펴보고, 중국 견제 등 일각의 주장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의 설명을 들어보기로 하자

● IPEF(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개념

- 상품·서비스 시장개방을 목표로 하는 전통적 무역협정과 달리, **공급망·디지털·청정에너지 등 新통상 이슈 중심**의 새로운 경제통상 협력체
  - 관세인하 등 시장개방을 중심으로 한 FTA보다 **포괄적 미래 아젠다에 대한 역내 협력 강화 플랫폼**으로서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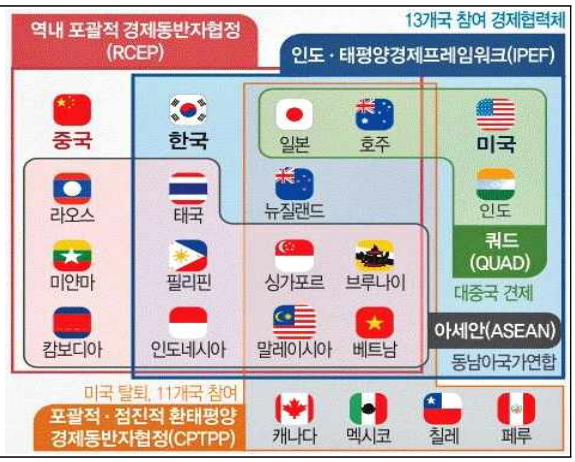
● 주요 내용 : ①무역, ②공급망, ③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 ④조세·반부패 4개 분야로 구성

①무역	디지털무역·표준·인프라·규범, 무역원활화 촉진, 경쟁, 노동·환경, 투명한 규제관행 협력, 지속가능한 농업협력, 공정경쟁 협력 등
②공급망	핵심품목(반도체·핵심광물 등) 공급망 협력 강화, 조기경보시스템 등 위기시 공조체계 구축 등
③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기술협력·역량강화·프로젝트 발굴, 핵심산업 탈탄소화를 위한 기술협력 등
④조세·반부패	기존 국제조약상 의무 이행 지원·협력, 정부조달 투명성 등

● IPEF와 인도태평양지역 주요 경제협력체 비교

('20년 기준, 對세계 또는 우리의 총 교역규모 대비 비중)

구분	RCEP	CPTPP	IPEF
참가국	15개국 (한국 포함)	11개국 (한국 미포함)	13개국 (한국 포함)
인구	22.7억명 (29.7%)	5.1억명 (6.7%)	25억명 (32.3%)
GDP	26.1조 달러 (30.8%)	10.8조 달러 (12.8%)	34.6조 달러 (40.9%)
우리와의 교역규모	4,839억 달러 (49.4%)	2,364억 달러 (24.1%)	3,890억 달러 (39.7%)



● 참여 기대효과

① 디지털·탈탄소·청정에너지 등 인태지역 **新통상 규범 논의**에 **룰 메이커(rule maker)**로서 역할

② 반도체·청정에너지·핵심광물 등 **역내 공급망 협력 증진**을 통해 **공급망 다변화·안정화**

③ 역내 주요국과 **민관 및 기업간 협력**을 촉진하여 **미래 이슈(디지털·신기술 등)** 관련 우리 기업 **경쟁력 강화**
  - 디지털 신기술, 산업의 탈탄소 전환, 청정에너지 분야에 있어 민관 협력 확대 및 기술표준 논의 진행 전망

④ **인프라 투자, 역량 강화, 공동 프로젝트 참여**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인태 시장 진출 기회** 확충

Q) ①IPEF가 對中 견제가 목적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②우리의 IPEF 참여에 대해 중국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A) ①IPEF는 **포용성과 개방성을 강조**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역내 번영을 위해 **IPEF가 포용적이고 열려 있는 경제협력체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②우리나라는 인태지역에서의 신통상질서를 주도하고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RCEP, CPTPP, IPEF 등 다양한 경제블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거나 가입을 추진 중**임. 우리 정부는 **다양한 협력채널을 활용**하여 중국을 비롯한 **역내 다른 국가와의 경제협력도 더욱 공고히** 해 갈 것임

정리 종합전략실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설명자료 등

GVC 전문가 ① : 박선민·이유진(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및 시사점(IPEF 등)'

※ 인도태평양 지역의 무역·경제적 의미,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 및 IPEF(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의 추진 배경, IPEF의 향후 전망에 대해 알아보자

- **(인태 지역의 경제·무역) 인도태평양[1] 지역은 2020년 기준 세계경제(GDP)의 44.8%, 무역의 35.3%, 인구의 35.2%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블록이며 IPEF를 기점으로 향후 경제·교역·투자 관점에서도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전망**
  - 2020년 기준 인태 지역 경제규모(GDP)는 38조 1,570억 달러이며 무역 규모는 12조 701억 달러
  -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 있어서도 인태 지역 비중은 47.1%를 차지하며 전 세계 직접투자에서의 비중도 2010년 31%에서 2020년 46%로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갈 만큼 잠재력이 높은 지역임
  - 한국, 중국, EU, 아세안 등 주요 국가들도 인태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중
    * 한국 '신남방정책(2017)', 일본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2017)', EU '인태지역에서의 EU협력전략(2021), 아세안 ASEAN Outlook on the Indo Pacific(AOIP)(2021)', 중국 '일대일로(2013)' 등

- **(미국의 인태전략) 미국은 지난 2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Indo Pacific Strategy of US)」을 발표하고 인태지역에 대한 기본적 전략 체계를 마련**
  - '자유롭고 개방된(Free and open)' 인도태평양을 위해 역내 동맹국들과 '공조(Connectivity)'를 통하여 '번영(Prosperity)', '안보(Security)', '회복력(Resilience)'을 추구하는 것이 기본 골자
  - 이 중 경제협력을 통한 번영을 위해 마련한 수단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으로 지난 5월 23일 바이든 대통령의 방일기간 중 공식 출범
  - 현재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을 트럼프 대통령이 확장시킨 결과이며, 이러한 기조는 정권과 관계없이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추정

- **(IPEF 향후 전망) 美 행정부는 2022년 11월 美 중간선거, 2023년 11월 APEC 정상회담(美 주최)을 기점으로 구체적 합의내용 도출 등 가시적 진전을 이루려 할 것으로 전망됨**

< 향후 예상 일정 >

'22. 5. 23 : 공식 논의 출범 (13개국)
'22. 11 : 중간선거 일정에 앞서 구체적 합의내용 도출 등 가시적 진전
'23. 11 : 미국에서 주최하는 APEC 정상회담에 앞서 합의안 도출

- IPEF는 시장접근(market access) 차원보다는 **공급망, 디지털, 탈탄소 등 신이슈**를 중심으로 다루는 **경제협정**인 바, 새로운 **국제통상 환경 변화**에 주목하고 **대응 및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
  * 의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행정협정(executive agreement)은 쉽게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반대로 정권이 교체되면 쉽게 무효화될 수 있다는 약점도 존재

- 또한 가장 큰 우려 중 하나인 중국의 반발(제재) 가능성과 관련하여, 최근 미-중 경쟁구도의 변화 등을 감안할 때 **미-중 양국간 극단적 힘겨루기 및 편가르기로 진행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
  *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對中 견제 기조를 이어가되, 보다 '관리되고 신중한' 접근을 지향
  * IPEF는 분야별 협의에 기반한 모듈형 협정이기 때문에 참가국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작성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박선민, 이유진

1) 표제 보고서가 다루는 인태지역 대상 국가는 한국, 일본, 아세안 6개국(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 대만, 대양주 2개국(호주, 뉴질랜드)을 비롯해 인태지역과 밀접하게 연계된 캐나다와 멕시코를 포함. 중국은 제외

GVC 전문가 ② : 강내영·양지원(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 '중국의 봉쇄조치 시나리오별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제로코로나 정책에 따른 주요 도시 봉쇄조치에 따라 중국의 경제성장률 감소가 예상되고 있으며, 이는 對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향후 중국의 봉쇄조치 시나리오를 예측해보고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

- **코로나19와의 공존(with Corona)으로 방역을 전환하고 있는 주요국과 달리, 중국은 '제로코로나'*(zero Corona)를 지속 표방하며 코로나 확진자 발생 지역에 대해 봉쇄조치를 단행 중**

  *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지역을 봉쇄해 확산을 막고 격리를 통해 확진자 수를 '0'으로 돌려놓는 정책

  - 시진핑 당 총서기의 3연임 여부가 결정되는 금년 10~11월경 개최 예정인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까지 현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큼

- **상하이에 이어 베이징 일부까지 봉쇄조치를 확대한 중국은 경제성장률 하향조정이 불가피할 전망**

  – 금년 중국 경제가 5% 성장이 어려울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영향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 **중국의 30%가 전면봉쇄될 경우, 금년 중국 GDP 성장률은 2.55(6주 봉쇄)~4.25(10주)%p 하락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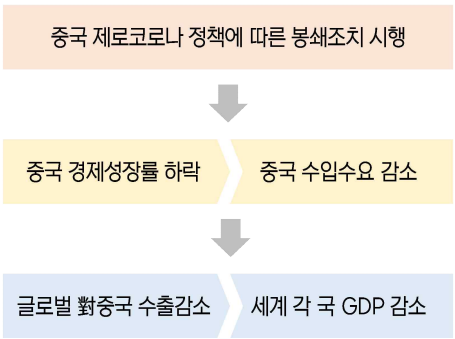
  – 중국 성(省)별 GDP 비중을 살펴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상하이(3.8%)에 이어 베이징(3.6%) 일부까지 봉쇄조치가 확대됨에 따라 봉쇄 해당 지역이 중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4%로 증가

  – 확산세가 심화되어 광둥(중국 GDP의 10.9%)과 장쑤(10.1%) 등까지 봉쇄가 확대될 경우에는 중국 GDP에서 봉쇄지역이 차지하는 경제 비중이 3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됨

- **봉쇄지역의 확대와 봉쇄조치의 장기화로 중국내 전면 봉쇄지역의 경제 비중이 30%를 차지할 경우,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0.19(6주)~0.32(10주)%p 하락 추정**

  - 중국 제로코로나 정책에 따른 봉쇄조치 시, 경제성장률 하락에 따른 중국 수입수요 감소 → 글로벌 對중국 수출 감소 → 한국 GDP 감소의 파급효과 발생
    - 한국 전체 GDP 중 중국 의존도(2020년 부가가치) : 7.5%
  - 중국내 주요 경제거점의 30%가 8주 전면봉쇄 될 경우, 금년 중국과 한국 GDP 성장률은 3.4%p, 0.26%p 각각 하락 예상
    - 전기장비(0.08%p), 화학(0.024%p), 기초·가공금속(0.016%p) 순으로 한국 경제성장률 하락분(0.26%p)에 대한 영향이 큼

〈중국 봉쇄조치 시행에 따른 한국 경제에의 영향 파급경로〉



〈 봉쇄 시나리오별 한국 GDP 감소 영향 〉

(단위 : %p)

봉쇄지역 경제비중	도시 내 주요 업무 및 주거시설 전면 봉쇄			확진자 발생 일부지역만 부분 봉쇄		
	6주	8주	10주	6주	8주	10주
10%	0.06	0.08	0.11	0.02	0.02	0.03
20%	0.13	0.17	0.21	0.03	0.04	0.05
30%	0.19	0.26	0.32	0.05	0.06	0.08
40%	0.26	0.34	0.42	0.06	0.08	0.11
50%	0.32	0.43	0.53	0.08	0.11	0.13

주 : 단위는 연간 GDP 성장률의 변화(%p), 봉쇄지역 경제비중은 중국 성별 GDP 기준
자료 : ADB MRIO 활용하여 저자 계산

※ **(생각해보기) 한국과 중국은 경제와 공급망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 중국의 코로나 대응이 자국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님. 앞으로 **중국의 코로나 대응이 중요하고 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임

작성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강내영, 양지원

GVC 돋보기 : 배터리(이차전지)의 종류와 특징

※ 배터리(이차전지)는 디지털전환과 친환경화 등 미래 산업을 움직이는 핵심 동력으로서, 전기차 보급 확대에 힘입어 급속한 성장이 예상됨. 아래에서 배터리의 종류와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자

- **배터리의 전방 수요처는 ① 전기차 67%, ② IT기기 등 25%, ③ ESS(에너지저장장치) 11%**
  - 전기차가 배터리 산업의 성장을 주도 (전기차용 이차전지(EVB)는 향후 10년간 10배 이상 성장 전망)
    * EVB 시장 규모 : ('20년) 230억불 → ('25년) 1,590억불 → ('30) 3,980억불 (출처 : SNE리서치)

- **전기차의 경우 내연기관차의 엔진에 해당하는 배터리가 자동차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
  - 배터리는 전기차의 주행거리, 안전성을 결정지을 뿐만 아니라 전기차 생산 원가의 30~40% 차지

- **전기차 배터리(이차전지) 산업의 기초**

❶ 전기차 업체들은 모델별 5년 이상의 생산계획을 수립 → 초기 선점 효과가 중요한 산업
❷ 배터리 원가 구조상 재료비 비중이 높아 高 마진을 기대하기 어려움
❸ 내연기관과 Price Parity가 달성되는 배터리 팩 가격은 약 100달러/kWh으로 알려져 있음

- **전기차용 배터리(이차전지)의 종류**
  - 이차전지의 4대 소재(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를 담은 형태에 따라 ①원통형, ②각형, ③파우치형으로 구분
  - 또한, 양극재의 종류(구성 물질)에 따라 LCO, LFP, 삼원계(NCM, NCA, NCMA)로 나눔

	LCO	LFP	NCM	NCA	NCMA
구성	리튬+코발트산화물	리튬+철+인산화물	니켈+코발트+망간산화물	니켈+코발트+알루미늄산화물	니켈+코발트+망간+알루미늄산화물

* 니켈은 에너지 출력을 담당하는 물질로 비중이 높아질수록 배터리 성능(에너지밀도)↑, 안전성↓ 경향 있음

- **배터리(이차전지) 종류별 특성(상대적) 및 주요 기업**

구분	원통형	각형	파우치형
형태			
장점	낮은 생산단가 대량생산 가능	높은 공간효율성 우수한 안전성(내구성)	높은 공간효율성 높은 에너지밀도
단점	작은 용량, 낮은 공간효율성	낮은 에너지 밀도, 무거운 무게	높은 생산원가, 안전성이 낮음
주요 공급기업	파나소닉, LG엔솔, 삼성SDI	CATL, 삼성SDI, BYD, 도시바	LG엔솔, SK온, 파라시스
주요 수요기업	테슬라, 리비안	BMW, 폭스바겐, 아우디, 포르쉐	현대기아, GM, 포드, 르노닛산

- **배터리(이차전지) 종류별 시장 현황 및 향후 전망**
  - (시장 현황) 현재 종류별로는 각형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원통형은 테슬라의 판매 호조로 인해 수요측면에서 견조
  - (향후 전망) 원통형은 테슬라를 감안할 때, 당분간 안정적 수요 확대가 예상되나 중장기적으로는 파우치형(에너지밀도), 각형(안전성)이 약진할 것으로 전망

정리 종합전략실 참고 네이버 지식백과, 경제관련 기사 등

GVC 소식통 ① : 러-우 사태 · 중국 봉쇄조치 관련 기업 지원 문의처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분야	지원기관	지원내용	비고
①수출통제	**전략물자관리원(www.kosti.or.kr) 러시아데스크** · 제도문의 : 02-6000-6498 / 6499 · 품목분석 : 02-6000-6496 / 6497	對러 수출통제 상세 내용 및 對러 **통제품목 사양 정보** 등 안내	
②금융	**금융감독원(www.fcsc.kr)** · 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 02-3145-1332→6번	대러 금융제재로 인한 **금융애로 접수·해소 지원**	
	한국산업은행 영업점 또는 상담센터(02-787-5611)	**긴급 금융지원** 상담 및 금융지원프로그램 안내 ※ 신용보증기금(053-430-4345)	· 특별운영자금 : 0.2 조원 · 중소·중견 지원자금 : 0.6 조원
	수출입은행 영업점 등(02-6252-3416)		· 0.5 조원 규모 지원
	기업은행 영업점 등(02-729-7494)		· 0.7 조원 규모 지원
③무역투자	**KOTRA(www.kotra.or.kr)** · 무역투자24 전담창구: 1600-7119(2→4)	**"무역투자24" 온·오프 전담창구** 운영 진출기업 동향 점검, 비상연락망 가동	
	무역협회(www.kita.net) · 긴급애로대책반: 02-1566-5114	수출입기업 대상 **긴급 애로접수 창구 운영**	
	한국무역보험공사(www.ksure.or.kr) · 02-399-7204/7034/6951·1588-3884	**무역보험 지원**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무감액 연장, 단기수출보험 보험금 신속 지급 등
④공급망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 (1670-7072)	소부장 수급애로·간접피해 등 기업 애로 접수 및 대응 지원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044-203-3861~2)	국내외 공급망 관련 정보 제공	산업부·무역협회·코트라 등 협업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 (02-6000-5754)	수출입물류 애로 접수 및 대응지원	산업부·해수부·중기부 무협·물류협·해협·HMM 등
⑤물류	**KOTRA(www.kotra.or.kr)** · 유망기업팀: 02-3460-7445/7426/7428	**긴급물류 지원 사업**	현지 임시 보관 및 내륙운송 서비스 지원
⑥법률자문	**KOTRA(www.kotra.or.kr)** · 해외진출상담센터 : 1600-7119(연결번호2-4)	**비즈니스 애로 러시아 변호사 자문 상담**	
⑦중소기업 긴급경영 안전자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www.kosmes.or.kr)** · 정책자금 전담 콜센터: 1811-3655	· 러-우 수출입비중 30%이상 · 러-우 진출·수출입기업 등과 거래 비중이 30%이상	· 기간은 2년 거치 3년 분할 · 10억원이내 (3년간 15억원 이내)

● 중국 공급망 관련

구분	담당 기관	연락처
국내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	☎ 1670-7072 (대표전화)
	KOTRA 유망기업팀 **'물류 현안 지원'**	☎ 02-3460-7445/7430/7426
중국 현지	**주중한국대사관(상무관)** 및 **총영사관(상무관)**	☎ (+86)10-8531-0849 (대사관 상무관실)
	KOTRA 중국내 무역관(베이징 등 20곳)	☎ (+86)10-6410-6162 (중국본부, 대표전화)
	한국무역협회 중국내 지부(베이징·상하이·청두)	☎ (+86)10-6505-2671~3 (베이징지부)
	중국한국상회 및 **지역한국인(상)회**	☎ (+86)10-8453-9756~8 (중국한국상회)

※ 실물경제 공급망 관련 산업부-재외공관(상무관)-KOTRA(무역관)-무역협회-한국상회 등이 유기적 협업 시스템 운영 중

정리 종합전략실 작성 글로벌 모니터링실(KOTRA), 산업분석실(한국무역협회)

GVC 소식통 ② : 기업들을 위한 물류 지원 사업 안내

● 중국지역 긴급 화물 보관 및 내륙운송 지원 특별사업 (KOTRA)

- (지원대상) **중국 내 물류 이동 제한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 (참가비) **국고, 기업분담금 매칭펀드로 100만~1,000만원 지원**(국고지원 비중 :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 VAT포함)
- (참가절차) ①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사업신청 〉 사업명 : '물류' 검색 〉 해당사업 클릭 → ② 지원가능 여부 검토(해외무역관) → ③ 참가업체 선정(본사) → ④ 선정통보 및 참가비 납부 → ⑤ 무역관과 협약서 체결 → ⑥ 사업지원개시
- (문의처) KOTRA 유망기업팀 ☎ 02-3460-7445, 7430, 7426

● 수출 중소기업 전용 선복 운송 지원 안내 (KOTRA·삼성SDS·CJ대한통운)

- (사업내용) 선복부족 애로사항이 지속 접수됨에 따라 기업이 기 확보한 정기선복의 일부를 국내 중소 수출기업에게 제공하여 적기 수출 지원
-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및 KOTRA 회원사**
- (신청기간) 추후 공시 시까지 **수시 접수(접수 물량 초과될 경우 선착순 마감)**
- (서비스 노선) **출항: 부산항** / 도착: 하단 참조

〈 해상 - 출항 정보 〉

운송지원사	구분	가용선복(TEU/Week)	주요기항지
CJ대한통운	일본	10	도쿄, 나고야, 오사카, 고베
	동호주	5	브리즈번, 시드니, 멜버른
	북미 서안	3	(서안) 엘에이, 롱비치, 시애틀, 타코마
	북미 동안	2	(동안) 뉴욕, 사바나, 노폭
	중남미 서안	3	(서안) 만자닐로
	중남미 동안	2	(동안) 산토스, 부에노스아이레스, 이타자이, 몬테비데오
	유럽	15	안트워프, 로테르담, 함부르크, 사우스햄튼, 그디니아, 르하브르
	서지중해	5	바르셀로나, 발렌시아, 제노아
	동지중해	5	이스탄불, 이즈미트
	아프리카	5	더반, 몸바사 ▶서아프리카 제외
	중동	7	제벨알리, 담만, 소하르
	서남아	8	나바셰바, 첸나이, 카투팔리 ▶방글라데시 제외
삼성 SDS	북미 서안	40	LA. 롱비치. 오클랜드. 시애틀. 밴쿠버
	북미 동안	10	뉴욕. 사바나
	북유럽	20	로테르담. 함부르크. 앤트워프
	지중해	10	제노아. 바르셀로나. 발렌시아. 포스
	남미 동안	20	산토스. 이타자이·부에노스아이레스. 몬테비데오
	아시아	20	호치민. 방콕. 람차방. 포트켈랑. 하이퐁(추가)

- (상세내용) CJ대한통운 중소기업 전용선복 지원안내(클릭) 또는 CJ대한통운 중소기업 전용선복 지원안내(클릭)을 통해 확인
- (참가신청) ① CJ대한통운: **링크(클릭)** / 'KOTRA 무역투자 24 〉 사업신청 〉 #물류/통관'을 통해 신청
  ② 삼성SDS: **링크(클릭)** / 'KOTRA 무역투자 24 〉 사업신청 〉 #물류/통관'을 통해 신청
- (문의처) KOTRA「유망기업팀」☎ 02-3460-7436

● **[항공·해상운송] 로스엔젤레스 수출 중소기업 항공·해상운송 지원사업 (한국무역협회·대한항공·밸류링크유)**

- (사업개요)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항공기 수출 스페이스 및 전용 선복 마련을 통해 운송 지원(~'22년 6월)

〈 항공 - 항차 정보 〉

도착지	출항지	출항일	신청마감일	선적 물량
Los Angeles, CA	부산	6월 14일(화)	**6월 7일(화)**	3FEU

〈 해상 - 출항 정보 〉

출항예정일	예약 마감일	서류/화물 (입고) 마감	중소기업 전용 스페이스
수요일	**월요일 12:00**	화요일 12:00 이전	편당 3톤 내외
일요일	**목요일 12:00**	금요일 12:00 이전	편당 3톤 내외

- (상세내용) 대한항공 공동 "회원사 항공운송 지원사업"(클릭) 또는
  물류 스타트업 "밸류링크유" 공동 수출 중소기업 해상운송 지원사업 안내(클릭)을 통해 확인
- (참가신청) **링크(클릭)** 또는 'KITA.net 〉 무역지원 서비스 〉 무역지원 사업일정'을 통해 신청
- (문의처) 한국무역협회 「물류서비스실」 ☎ 02-6000-5754 / hjo117@kita.net

● **[항공운송] 프랑크프루트(독일) 수출 중소기업 항공운송 지원사업 (KOTRA·대한항공)**

- (사업개요) 항공운송 부족 애로사항 지속 →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항공기 수출 스페이스 운송 증편(~'22년 12월)

〈 항공 - 항차 정보 〉

출항예정일(매주)	예약 마감일	서류/화물 (입고) 마감	중소기업 전용 스페이스
수요일	**화요일 17:00**	수요일 12:00 이전	편당 3톤 내외
일요일	**금요일 12:00**	금요일 17:00 이전	

- (상세내용) KOTRA-대한항공 중소기업 항공운송 지원 안내(클릭)를 통해 확인
  ** 일반 화물 대상(냉장·냉동·위험물 등 특수화물 진행 불가)*
- (참가신청) **링크(클릭)** 또는 'KOTRA 무역투자 24 〉 사업신청 〉 #물류/통관'을 통해 신청
- (문의처) KOTRA 「유망기업팀」 ☎ 02-3460-7436 / 항공물류 수행사 ☎ 02-3460-7436

● **[복합운송] 유럽·러시아向 수출기업 해상+철도 복합운송 지원사업 (한국무역협회·LX판토스)**

- (사업개요) 우리 수출기업을 위한 전용 선복 마련 → ① **운임 할인(10~15%)**, ② **선복 지원(항차별 30TEU 확정 지원)**, ③ **실시간 가격 조회 및 이력관리 제공**
- (지원대상) **국내 수출기업(실화주)** **포워더社는 신청불가*

☞ **기존대비 변경사항**
- 도착지 확대 : **유럽 전역 및 러시아**
- 모집방식 변경: **상시모집**

〈 항차 정보 〉

해상+철도 복합운송					내륙운송	
노선	출발지	도착지	소요일	컨테이너	최종도착지	소요일
TCR	인천/평택	폴란드 말라세비치	30일	40피트(*20피트 불가)	유럽 전역	+2~3일
TSR	부산	폴란드 말라세비치	45일	20피트·40피트		
		러시아 모스크바	40일		모스크바 인근 지역	

- (상세내용) 유럽向 수출기업 해상+철도 복합운송 지원사업 안내(클릭)를 통해 확인
- (참가신청) **링크(클릭)** 또는 'KITA.net 〉 무역지원 서비스 〉 무역지원 사업일정'을 통해 신청
- (문의처) **지원사업 관련** : 한국무역협회 「화물예약데스크」 ☎ 02-6000-7617/5935 / logistics01@kita.or.kr

작성 글로벌 모니터링실(KOTRA), 산업분석실(한국무역협회)

GVC 소식통 ③ : 공급망 관련 세미나 및 상담회 개최 소식

● 한-인도 에너지 스토리지 섹터 Connect 2022

- 탄소중립 기조에 따라 인도는 에너지 저장 산업 육성 및 친환경 에너지 확대 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음
  → 인도 에너지 스토리지 산업으로 진출 및 국내 기업과의 협력전략을 제공하고자 웨비나 및 1:1 화상상담 진행

  - (일시) 웨비나 6월 14일(화), 13:30~15:20 / 온라인 화상상담 6월 15일(수)~16일(목)
  - (신청기한) 5월 27일(금)까지
  - (참가신청) KOTRA 한-인도 에너지 스토리지 섹터 Connect 2022(클릭)에서 영문 회사소개 자료(PPT 또는 PDF) 및 신청양식(첨부2 Excel) 작성 후 하단 메일접수처 제출
  - (프로그램) 웨비나 : 인도 경제 동향, 인도 에너지 저장 산업 트렌드, 한국 기업과의 협력전략 등
    1:1상담 : 국내 에너지 스토리지 분야 관련 기업과 인도 바이어와의 1:1 화상상담
  - (상세내용) KOTRA 한-인도 에너지 스토리지 섹터 Connect 2022(클릭)에서 확인
  - (문의처) KOTRA 뭄바이무역관 유동길 차장 ☎ +91-02204925-5403 / dgk.yoo@kotra.or.kr
    KOTRA 뭄바이무역관 송지원 Specialist ☎ +49(0)171-939-3053 / jiwonsong@kotra.or.kr

● 2022 중국 배터리 원료 광물 시장 전망 세미나

- 전기차, ESS 등장으로 배터리 수요가 급증한 반면 중국의 광산 폐쇄 및 신규 광산의 개발이 지연되면서 원자재 공급 부족이 심화됨 → 한국광해공업공단과 중국 국영 리서치 센터 Antaike 공동 주최로 중국 배터리 원료 광물 시장에 정보 전파 세미나를 개최

  - (일시) 5월 31일(화) 14:00~17:00
  - (장소) 오프라인: 서울 트레이드타워 51층 중회의실(삼성역 5번 출구) / 온라인: ZOOM 링크 발송
    - 오프라인 현장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선착순 30명만 가능
  - (신청기한) 5월 26일(목)까지
  - (참가신청) 폼 작성(클릭)을 통해 참가 신청
  - (프로그램) ① Analysis of Copper Market Fundamentals and Outlook on Price Trend
    (Mr. He Xiaohui, Antaike 동 담당 수석전문가)
    ② Analysis of Nickel Industry in China and Indonesia
    (Ms. Liu Yujing, CNIA 니켈 분과 부비서장 수석연구원)
    ③ Intensified Uncertainties of Lithium Supply and Demand in the Context of Covid-19
    (Ms. Yu Yaku, Antaike 리튬 담당 수석연구원)
    ④ Cobalt Market Outlook in 2022: Capacity Ramp-up in Resource Side Coexist with Supply Chain Disturbance, Demand Remains being Supported
    (Mr. Liu Yimin, Antaike 코발트 및 배터리 재활용 수석엔지니어)
  - (참고사항) 모든 발표는 한·중 동시통역으로 진행
  - (문의처) 한국광해광업공단 해외협력팀 ☎ 033-736-5665 / cooperation@komir.or.kr

GVC 소식통 ④ : 공정위, '납품단가 조정 가이드북' 작성·배포(5.20)

※ 최근 원자재 수급난 및 가격상승으로 인해 **원자재를 구매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수급사업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는 원자재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해달라는 요청조차 못하는 실상임. 이에 **공정위는 납품단가 조정협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가이드북을 작성·배포함**(5.20)

● 가이드북 주요 내용

〈수급사업자의 법적권리〉	
조정 신청권	수급사업자는 계약서 기재유무와 무관히 원자재 가격 급등시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유한다. 필요시 소속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행 협의**를 신청할 수 있음
〈원사업자의 법적 의무 및 금지사항〉	
협의개시 의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10일 이내**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함
성실협의 의무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할 수 없음**
계약서 기재 의무	계약 체결시, 원사업자는 이러한 납품단가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를 **계약서에 기재**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함
부당특약 금지	계약서상 납품단가 조정 불가 조항은 **하도급법상 금지**되어 있음
조정협의 관련 서면보존 의무	조정 종료 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조정 신청의 내용 및 협의 내용,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조정결렬시 그 사유) 등을 **서면에 기재하여 보존**하여야 함
보복조치 금지	원사업자는 조정신청을 이유로 **수주기회 제한·거래의 정지·그 밖에 불이익** 등을 주면 안 됨
〈바람직한 조정 절차〉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조정요건,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서면에 적시**해야 함 • 수급사업자는 납품단가 조정을 위해 원가 확인을 위한 **근거자료**를 **수시로 수집·보관**해야 함 • 협의 시, 각자 희망하는 **납품단가 조정 비율을 제시**하고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한 후 ① 원자재 가격상승의 정도, ② 공급원가 중 원자재 비용의 비중, ③ 목적물의 특성과 그 시장 상황, ④ 관련 도급 및 하도급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	

● 조정 결렬 시 구제 및 법 위반 신고

- 조정 거부 또는 조정 결렬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 **분쟁조정 통합시스템**(fair.ftc.go.kr)을 이용하거나 아래 각 기관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1588-1490, https://fairnet.kofair.or.kr/)
> 중소기업중앙회 (02-2124-3131,3133, https://www.kbiz.or.kr 상담센터-하도급분쟁조정)
> 대한건설협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02-549-2105, https://csdmc.or.kr)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02-2188-6933, https://sw.or.kr 사업지원-신고·상담센터-하도급분쟁조정신청) 등

- 납품단가 조정과 관련된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불공정거래신고 안내**', 익명신고를 원할 경우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음

  * 아이피(IP) 주소가 수집되지 않고 제보자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되므로 신원 노출에 대한 우려 없이 제보 가능

☞ **〈더 찾아보기〉**

- 가이드 북 원문 : 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
- 공정위 조사관의 '납품단가 조정 협의제도' 설명 영상 : www.youtube.com/watch?v=RYJCJ0nngEw

정리 종합전략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2.5.22) 등

더 찾아보기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세계무역의 새로운 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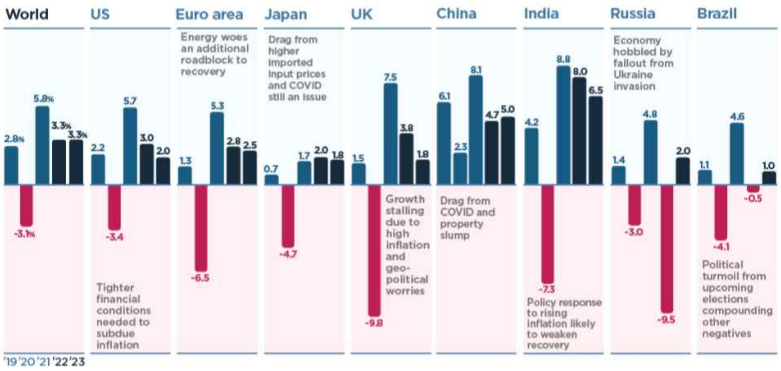
- 제프리 스콧(Jeffrey Schott) 초청, 세계경제연구원(IGE) 웨비나

※ '22.5.18일, 세계경제연구원은 국제무역 정책 및 제재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제프리 스콧(Jeffrey Schott)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 Senior Fellow를 초청하여 웨비나를 개최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국제 정세 불안, 경제 제재의 여파와 이에 따른 글로벌 무역의 현안에 대한 강연 내용을 아래 정리하여 소개함

● **세계 무역은 '뉴노멀'에 직면했으며, '22~'23년 성장의 감소를 경험할 것임**

- 세계 경제는 코로나19로부터 회복 중이었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회복세를 저해함
  - 주요국의 GDP 성장률은 '20년 감소 이후 '21년 회복되었지만, '22년부터 다시 감소 전망 (그림 참조)
- 에너지·식량 가격 급등과 對러 제재, 러시아의 역 제재로 유로존 및 신흥국을 중심으로 공급망 교란 발생

〈실질 GDP 성장률(전망)('19-'23p)〉 (전년비 %)



출처 : PIIE, 주 : 2022-2023년 성장률은 PIIE 전망치

● **세계 경제는 공급사슬과 경제·안보전략이 변화함에 따라 코로나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못할 것임**

- (공급사슬 변화) 서방 국가들 주도의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 러시아가 배제되고, 러시아로의 투자가 중단되는 등 금융·수출 규제 조치에 따라 러시아가 세계 공급사슬에서 디커플링 되고 있음
- (경제) 공급사슬의 회복탄력성 제고를 위해 국가들이 반도체·배터리·핵심광물 등 산업의 자국 생산을 지원하는 추세임
  - 불확실성 증대 → 기업은 위험 기피, 국가는 내수 중심으로 변화 → 국가경제 성장 저하·불황
  - 다만, 對美 투자와 산업협력을 활용한다면, 한·미 동맹관계 강화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음
- (안보) 에너지·식량 등 원자재의 무기화가 진행되며, 원자재의 중요성이 강화됨
  - (에너지)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감소로 추가 화석연료가 필요해졌으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움직임이 약화됨
  - (식량) 인도의 소맥 수출제한 조치, 중국의 식량 사재기 등으로 신흥국의 식량 공급망이 불안해짐

● **한국은 다자간 무역협정에서 미국·중국·아세안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통해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해야 함**

① **IPEF를 통해 미국과의 우호 관계를 강화**하고 **디지털 무역 협정에 대비**해야 함

② 한·중 혹은 한·중·일 등 양자·삼자 FTA 등을 통해서 무역 관계를 변화시키기 어려워진 만큼, **메가 FTA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임
  - RCEP을 통해 중국과의 상호 연결을 강화하고, CPTPP를 일본과의 파트너십 발전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임

③ RCEP을 지역 통합의 기회로 삼아, **아세안 국가들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해야 함

※ 웨비나 다시보기(유튜브) 링크 : https://youtu.be/1pOyTojRUuY

작성 산업분석실, 한국무역협회

【참고】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소개 및 활용 방법

-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Korea Center for GVC) **출범 ('22.2.9)**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협회, KOTRA 등이 중심이 되어 출범한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는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 상시·전문적 분석 역량을 갖춘 공급망 분석 전문기관으로서,
    ① 정부부처, 무역관, 업종별 협회 및 주요기업 등으로부터 수집된 주요 산업 관련 국내·외 동향 심층 분석
    ② 공급망 관련 이상징후 신속 전파 및 대응조치를 제언하는 등 국가 조기경보시스템(EWS) 운용 지원
    ③ 정부와 민간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및 전략 수립을 지원
  - '분석센터' 조직은 종합전략실, 산업분석실, 공급망 모니터링실 등 3개 실을 두고,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협회, KOTRA 등 기관의 전문인력에 더하여, 업종별 협·단체의 파견 인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

- **'글로벌 공급망 유관기관 협력회의' 개최 ('22.3.21)**
  -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협력기관 확대(기존 12개 → 약 30개) 및 현장 중심의 공급망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개편 전(12)	→	개편 후(29)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부장 수급대응 지원센터 (2)		산업통상자원부 소부장 수급대응 지원센터 (2)
산업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로봇산업협회 (6)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로봇산업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한국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전지산업협회**,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16)
무역·통상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략물자관리원 (3)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략물자관리원, **한국수입협회** (4)
에너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석유공사** (3)
연구기관	국제무역통상연구원 (1)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4)

-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분석센터' 방문 및 '공급망 현안 점검 회의' 개최 ('22.4.29)**
  -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에 따른 지역 봉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공급망 현안 점검
    · 제조업 외에도 식량 등 연관 분야 공급망까지 확장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협력하는 방안, 업종별 협단체 외에도 종합상사 및 민간기업의 역량도 결집하여 대체공급선 확보, 해외자원 확보 방안 등 협의

-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활용 방법 (종합 문의 : gvc_research@kita.or.kr)**
  - **(구독 문의)**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대외발간물) **3.3(목)부터 매주 1회(목요일) 발간 중**
    · 산업통상자원부(정책·정보-간행물), 한국무역협회(분석센터), 코트라(해외시장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한국무역협회와 kotra가 뉴스레터 형태로 메일 송부 중, SNS로 쉽게 전파·확산이 가능한 PDF로 작성
    ☞ **메일 구독(수신) 신청** : https://forms.gle/twC4m3uNTm14t2sR8
  - **(품목 문의)** 공급망 분석이 필요한 품목에 대한 문의 및 제안 → 중요성·파급력 등 검토하여 분석대상 선정
  - **(필자 참여)** 본인의 지식·경험을 활용하여 필자로 참여 가능 (단순 정보제공 형태로 참여도 가능)

글로벌 경제지표('22. 5. 25. 수)

[환율]

	'20.12.31	'21.12.31	'22.4.30	'22.5.20	'22.5.23	'22.5.24	전일比	'21말比
₩/U$	1,186.30	1,188.80	1,255.90	1,268.10	1,264.10	1,266.20	+0.17%	+5.22%
선물환(NDF,1월물)	1,186.30	1,190.00	1,256.20	1,268.40	1,264.30	1,266.10	+0.14%	+5.08%
₩/CNY	166.04	186.51	192.06	190.01	191.42	189.84	-0.83%	+2.32%
₩/Y100	1,051.19	1,032.48	964.30	991.94	989.51	991.70	+0.22%	-5.23%
Y/U$	103.34	115.14	130.24	127.84	127.75	127.68	-0.05%	+11.02%
U$/EUR	1.2279	1.1318	1.0544	1.0580	1.0599	1.0667	+0.64%	-5.34%
CNY/U$	6.5305	6.3681	6.5975	6.6925	6.6595	6.6747	+0.23%	+2.78%

* '21년 평균 환율: (₩/U$) 1144.6원, (₩/￥100) 1041.9원

[유가/원자재] (원유 $/배럴, 철광석.비철금속 $/톤)

구 분		'21년 최저(해당일)	'21.12.31	'22.5.23 (전일)	'22.5.24	전일(5.23比)	'21년최저比	'21년말比
원유(두바이)		50.05 (1.5일)	77.12	109.47	107.94	▼1.53 -1.4%	▲57.89 +115.7%	▲30.82 +40.0%
철광석		87.27 (11.18일)	120.75	135.95	130.50	▼5.45 -4.0%	▲43.23 +49.5%	▲9.75 +8.1%
비철금속	구리	7,755.50 (2.2일)	9,692.00	9,500.00	9,460.50	▼39.5 -0.4%	▲1,705.0 +22.0%	▼231.5 -2.4%
	알루미늄	1,951.50 (1.19일)	2,806.00	2,963.00	2,881.00	▼82.0 -2.8%	▲929.5 +47.6%	▲75.0 +2.7%
	니켈	15,907.00 (3.9일)	20,925.00	26,800.00	26,280.00	▼520 -1.9%	▲10,373 +65.2%	▲5,355 +25.6%

[반도체]

	'20	'21	'22.2	'22.3	'22.4	5.19	5.20	5.23	5월(~23)
D램(8G) 현물가($, 기간평균)	3.07	3.42	3.88	3.75	3.47	3.41	3.41	3.41	3.44
(YoY)	-21.9%	+8.0%	-0.6%	-11.0%	-25.1%	-22.8%	-22.2%	-21.9%	-23.3%
낸드(128G) 현물가($, 기간평균)	5.71	7.45	7.65	8.0	8.2	8.27	8.27	8.27	8.23
(YoY)	+7.0%	+32.8%	+33.1%	+33.9%	+34.5%	+33.9%	+33.4%	+32.9%	+33.4%

[SCFI(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

구 분	'21.12.31	'22.4.29	'22.5.6	'22.5.13	'22.5.20	전주(5.13比)	'21년말比
운임지수	5046.66	4177.3	4163.74	4147.83	4162.69	+0.4%	-17.5%

[BDI(Baltic Dry Index, 발틱운임지수)]

구 분	'21.12.24	'22.4.29	'22.5.17	'22.5.18	'22.5.19	'22.5.20	전일(5.19比)	'21년말比
BDI	2217	2404	3095	3189	3289	3344	+1.7%	+50.8%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Value Chain]

문 의

산업분석실 (한국무역협회) : gvc_research@kita.or.kr

공급망 모니터링실 (KOTRA) : gvc_monitoring@kotra.or.kr

※ 메일 구독(수신) 신청: https://forms.gle/twC4m3uNTm14t2sR8

협력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무역협회 |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MI 한국기계산업진흥회 | KDIA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 KAR 한국로봇산업협회 | koreaBio 한국바이오협회 | KSIA 한국반도체산업협회

KONMA 한국비철금속협회 | KPIA 한국석유화학협회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 KOIMA 한국수입협회 | KAICA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kama 한국자동차산업협회 | KEA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 KBIA 한국전지산업협회 | KSCIA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 한국철강협회

KAIA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 kosti 전략물자관리원 | KOSME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한국가스공사 | 한국광해광업공단

KNOC 한국석유공사 |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KIET 산업연구원 | 에너지경제연구원